

## 3분과 보고서 발간에 붙여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3분과의 보고서가 드디어 양국어로 정리되어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한일 양국 상호 간의 역사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앞으로 동반자적 한일관계 수립을 위해 조직된 공동연구위원회의 목표가 조금이나마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난 3년간의 힘든 활동을 되돌아보면 이만한 성과를 낸 것도 다행한 것으로 여긴다.

한일 양국의 제3분과 위원은 각각 5명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처음 발족이후 짧은 기간에 비해 본 분과의 위원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측 김장권 위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아픔도 같이 나누었고, 연구위원 일부(강창일, 유병용, 기타오카 위원)는 각국의 정치, 외교적 필요성에서 위원직을 사임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마지막에는 한일 양국 각 4명의 위원으로 이 보고서를 마무리하였다.

본 분과의 연구위원 수에 비해 연구주제는 다른 분과보다 훨씬 많았다. 그만큼 근현대의 시기에 한일 역사학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분과에서는 각국의 연구위원 외에 연구협력자를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보고서에는 13개 주제에 각국의 補論까지 추가되어 한국에서 15편, 일본에서 16편의 결과보고 논문이 제출되었다. 제3분과가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이 2년 남짓임을 감안하면 量的으로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제3분과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회의벽두부터 주제선정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적지 않은 대립이 있었다. 위원장의 분과소속문제도 있었고, 통역의 자격 등도 문제가 되기도 하여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리고 주제발표와 토론과정에서 심한 학술적 논쟁도 있었다. 출발자체가 양국간 역사인식의 차이와 교과서에 대한 해석과 인식의 차이에서 시작하다보니 서로에 대한 시선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도 3분과는 모두 14회의 한일합동회의와 논문발표회, 1회의 중간발표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동비평회를 가졌다. 이 과정을 통해 양국의 위원과 연구협력자는 활발한 학술적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밖에, 이번 양국 합동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사료조사와 연표작성 등의 작업도 병행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양국의 연구위원과 연구협력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堪耐했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본 분과의 공동연구 과정을 통해 많은 성과도 있었다. 역사연구자의 자세나 자료에 대한 비판적 접근 등에서 많은 부분 접근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사실 해석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역사 연구방법, 역사인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국제관계와 그 근대화, 한일간의 조약문제, 식민지배와 사회변화, 1945년 이후의 일한 관계의 제문제 등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런 차이는 앞으로 보다 밀접한 공동연구를 통해 해결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한일양국의 역사연구와 역사인식이 한번의 공동작업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잦은 만남과 대화를 통해 切磋琢磨와 相互理解의 영역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제3분과 소속 위원들은 만남과 대화의 중요성을 지난 3년간 깊이 인식할 수 있었다. 물론 서로의 견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도 많고, 반대로 서로 이해를 표시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서로의 역사인식에 진지하게 접근할 기회를 가지고 서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성과와 한계들을 다소나마 보여줄 것이다. 이 보고서가 앞으로 한일양국의 '역사대화'나 후대의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좀더 나은 한일관계의 정립에 기여하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2005년 3월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3분과 연구위원 일동